

亡室行狀類 연구

이 경 하

1. 문제제기
2. 망실행장의 저술의도 및 제작경위
3. 상투적 표현과 망자의 추상화
4. 구체적 서술을 통한 개성적 형상화
- 1) 장면화를 통한 구체적 진술
- 2) 망자의 개성적 형상화
5. 행장 글쓰기의 가치 재고

1. 문제제기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중세의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 가운데 行狀에 관한 연구는 傳이나 墓誌銘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傳狀類 중에서는 전이, 碑誌類 중에서는 묘지명이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祭文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亡者를 기억하는 글쓰기로서 역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¹⁾ 요컨대 한문산문에 대한 연구가 그 폭과 깊이를 날로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망자를 위한 글쓰기 가운데 행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그것은 행장 글쓰기가 전이나 묘지명이나 제문과 달리 대체로 문예미가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행장이 망자를 위한 글쓰기란 점에서 전이나 묘지명, 제문 등과 달리 의미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행장은 단지 묘지명 제작을 위해 망자의

1) 비지류와 애제류 산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동방한문학회와 '한국한문학 산문의 전개와 발전 양상' 기획논문들을 통해 개관할 수 있다. 황의열, 2006,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양상」, 『동방한문학』 31 ; 이은영, 2006,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동방한문학』 31.

생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1차 자료의 의미밖에 없는 것일까? 망자를 위한 글쓰기를 언어문자생활의 일부로서 관습적으로 수행했던 중세 문인들에게 행장 글쓰기가 묘지명이나 제문처럼 문학적 성취를 추구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행장 글쓰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

행장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것은 망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일하다. 그런데 행장은 여성의 일생을 기록하는 중세 글쓰기 양식으로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전통시대 여성의 삶의 양식은 장기지속과 반복의 특성을 갖는데, 행장은 그러한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데 적합한 양식이라고 판단된다.³⁾ 행장은 자세함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⁴⁾ 전이나 묘지명 등에 비해 망자의 행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재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은 烈行과 같은 특별한 행적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고, 제문은 망자의 일생을 기록한다기보다는 망자를 잃은 산 자의 슬픔을 토로하는 정서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⁵⁾ 묘지

-
- 2) 김미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 제문, 묘지명 등을 ‘여성전기’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여성전기의 일반적인 서술의도와 이 자료들에 나타나는 여성생활상을 고찰한 바 있다. 김미란, 2001, 『여성傳記의 서술의도 연구-16·17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 2004, 『조선전기의 女性傳記 연구』, 『동고학논총』 4.
 - 3) 강혜선은 조선 후기 한문산문에서 가족의 일상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고찰하면서, 여성의 일상이 보다 잘 드러나는 텍스트가 비지류와 애제류 산문이라고 전제하고 전장, 유사, 실기 등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전장과 유사 등이 여성의 특별한 행적을 기리고 세상에 전하려는 목적에서 기술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강혜선, 2005, 『조선 후기 여성대상 제문과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 58-59면) 하지만 망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공덕을 칭송한다는 목적은 전장류와 비지류 산문이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 4) 민병수, 1996,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384-385면.
 - 5) 제문과 같은 애제문이 작가 개인의 정감 토로를 주된 표현방식으로 삼는 것은 비지류나 전장류 산문과 구별되는 애제문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실용적인 목적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지문과 전장문이 기본적으로 서사양식이라면 애제문은 서정양식이란 차이가 있다. 제문에도 망자의 행적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전달보다는 칭송의 극대화를 위한 전형화·극대화의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이은영, 앞의 논문, 259-261면) 제문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 즉 서정적/사적 측면과 의례적/공적 측면이 각기

명은 여성의 삶을 婦德의 구현이란 형태로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경향이 행장에 비해 더 강해 보이는데,⁶⁾ 그것은 묘지명의 작자가 대체로 망자의 가족이 기보다 제3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행장은 대개 죽은 여성의 가족이 집필하며 망자의 일생을 구체적인 사건과 일화를 동원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므로, 전이나 묘지명이나 제문에 비해 보다 개별화된 망자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장의 이러한 경향은 망자를 위한 글쓰기로서 행장이 여타의 양식에 비해 보다 의미 있는 지점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亡室行狀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천착해 보고자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 가운데 가장 편수가 많은 것은 先妣行狀이고 망실행장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선비행장은 망실행장에 비해 규범적 언술이나 미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자에 대한 기억을 언술하는 주체는 남성이란 점에서 동일하지만, 아들로써 어머니의 일생을 기록하고 평가하기란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조심스럽기 때문에 보다 규범적인 언술태도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망실행장을 대상으로 여성 행장의 일반적 특성과 행장 글쓰기가 가지는 장점이 십분 드러나는 지점을 추적하고자 한다.

『한국문집총간』 소재 ‘망실행장류’에 속하는 자료는 모두 28편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망실행장류’라 함은 아내의 일생을 기록한 行狀, 行錄, 行實記, 遺事, 遺蹟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분명 문체의 명칭이 다르고 세밀하게 따지면 그 사이에 양식상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전장

극대화된 양상은 박무영의 제망실문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박무영, 2003,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 2004, 『이광사 제망실문의 연구-18세기 제망실문 연구의 일환으로』, 『국어국문학』 138.) 여성 대상 제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유경숙의 『조선조 여성제문 연구』(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가 있다.

6) 김기림에 따르면, 여성묘지명은 남성묘지명과 달리 不出—숨김, 從人, 宜家의 원리에 따른다. 이 원리에 따라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여성묘지명의 서술방식은 망자를 한 개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부덕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김기림, 2007, 『조선시대 여성묘지명에 나타난 서술원리와 그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참조.)

문으로서 그 기본 속성은 동일하며, 특히 문예미를 추구하는 본격적인 문학 글쓰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특정 자료를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들을 편의상 망실행장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2. 망실행장의 저술의도 및 제작경위

『한국문집총간』에 실려 있는 망실행장은 강희맹(1424-1483)의 <夫人安氏行狀>에서 허전(1797-1886)의 <淑夫人漢陽趙氏遺蹟>에 이르기까지 모두 28편이다.⁷⁾ 작자의 생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세기 이전의 망실행장은 5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17세기 이후의 것인데, 이러한 추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묘지명이나 제문이 17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망실행장은 망자의 행적을 기리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일반 행장과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록이란 점에서는 여타의 망자를 위한 글쓰기와 변별되는 지점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망실행장 제작의 목적과 경위를 직접 밝히고 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이른바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세세한 뜻과 행실은 진실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사라져 들리는 바가 없게 된다면, 어찌 영원히 가버린 혼백을 위로하고 뒤에 죽는 이의 애통함을 씻을 수 있겠는가? 이는 어진 사람이 마땅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평일에 듣고 본 것과 마음에 남은 것을 엮어 행장을 만들어 반남 박선생의 좌하에 명을 구한다.⁸⁾

* 다만 내가 가난하여 무덤 속에 넣을 글과 묘 앞에 세울 비석은 갖추 수가 없지만, 훗날을 기다린다고 핑계를 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내는 1남 1녀를 두어 다행히 그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장차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물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이보다 큰 것은 어떠하

7) 『한국문집총간』 외에도 망실행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이광사의 『斗南集』에 실려 있는 <亡妻孺人文化柳氏紀實>은 문집총간에 수록된 이광사의 문집 『圓嶠集』에는 빠져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들을 보태면 현전하는 망실행장의 총 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 林泳, 『滄溪集』卷17, <亡室安人曹氏行狀>. “所謂爲善而得報者, 果安在哉? 獨其區區之志行, 誠有不可無傳者, 若復湮滅不聞, 則何以慰長逝者之魂魄, 而洩後死之慟哉? 此仁人之所宜動念者也. 是以輒叙平日得於耳目衡於心者爲狀, 請銘於潘南朴先生座下.”

졌는가? 이를 기록하여 그 대강이라도 알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고로 이에 행장을 쓴다.⁹⁾

첫 번째 인용문은 임영이 쓴 아내 창녕 조씨 행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신익황이 쓴 아내 순천 박씨 행실기의 끝부분이다. 임영은 아내가 죽은 해인 1674년에 이 행장을 썼고, 신익황은 아내가 죽은 해에 당시 천연두가 유행하여 제대로 물어주지 못하다가 6년이 지난 1706년에 장사를 지내면서 이 행실기를 썼다. 창녕 조씨와 순천 박씨는 모두 출산 직후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임영과 신익황이 밝힌 망실행장의 저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을 전하여 죽은 혼백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의 애통함을 씻기 위해서. 둘째, 훗날 어린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아내의 행장을 짓는 것은 대개 이 두 가지 목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간 역시 아내 파평 윤씨의 행장을 쓰면서 어린 자식들을 위해 아내의 행적을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망자를 위로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통의 글이라고 했다.¹⁰⁾

‘망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전하여 민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란 행장의 저술 의도는 대개 묘지명 제작을 전제로 한다. 임영은 망실행장 말미에 “반남 박선생의 좌하에 명을 구한다”고 썼고, 박세채는 임영의 부탁대로 창녕 조씨의 묘지명을 써 주었다. 이선은 1654년 아내가 죽은 후 30년에 걸쳐 행장을 쓰고 고쳤는데, 아내의 묘를 이장한 후에 “대군자의 한 마디를 빌어 천고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¹¹⁾ 하고 송시열에게 묘지를 청하면서 아내의 행장을 완성

9) 申益悞, 『克齋集』卷11, <亡室恭人順天朴氏行實記>. “抑余貧也, 納壙之文, 墓前之石, 又莫能備焉, 可諉者曰俟後. 而君有一男一女, 今幸望其成長, 然有問阿孀之面目, 亦不復可了, 況大於此者乎? 是不可不書之, 使知其槩也, 是爲狀.”

10) 李柬, 『巍巖遺稿』卷16, <亡室安人尹氏行狀>. “子女之識其面者, 未必知其事實, 而又固有不識其面目者矣. 茲不得不槩舉而歷記之, 以遺其人, 且念其區區志行, 誠不可以無傳者, 若復不託立言之君子, 遂湮滅而無聞. 則又何以慰長逝者魂, 而洩後死之慟哉? 此仁人之所宜動念者也, 是以輒寫一通, 以俟當世作者. 嗟夫! 爲幽明釋憾地者, 獨有此而已.”

11) 李選, 『芝湖集』卷9, <亡室孺人尹氏行狀>. “惟是壙中, 尙闕銘辭, 庶幾仰藉大君子一

했다. 묘지명은 이처럼 당대의 이름난 문인·학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김석주와 남유용, 성해옹처럼 남편이 아내의 행장과 묘지명을 함께 쓴 경우도 있다.

신익황의 예에서 보듯이, 당장 묘지명을 제작할 형편은 못 되지만 일단 아내의 행장을 써 두고 훗날을 기약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이 立言君子에게 채택되기 바란다’는 구절이 망실행장 말미에 흔히 보인다. 묘지를 쓰지 못하고 행장으로 대신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의현이 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행장이 그런 예이다. 이 장할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묘지를 넣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고 행장을 통해 아내의 미덕을 상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¹²⁾

한편 유언호는 아내를 위해 유사와 묘지명을 지었으며 다수의 제문도 남기고 있는데, 그 제작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아내가 죽기 전에 이미 묘지명을 써두었고, 유사는 아내가 죽은 이듬해 동지정사의 신분으로 연경에 가는 길에 말을 타고 가며 구상한 것이라고 했다. 그 때 여러 번 아내가 꿈에 보였다고도 했다.

* 내가 부인을 위하여 그의 생전에 묘지를 써 두었고, 상을 당함에 유사 한 통을 지어서 부인의 조카 부학군에게 행장을 써 달라고 부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맡은 일이 번거롭고 군색하여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금년 겨울에 명을 받들고 연경으로 가면서 말 위에서 구상하여 문득 기록한 것이 모두 29조목이 되었다. 아, 遼薊의 풍상에 나그네의 수심이 끊기고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 붓끝으로 나온 것이 모두 40여 년이다. 중간은 소략하고, 죽고 사는 감흥은 슬픔을 빼고 처음을 찾았으니, 어찌 다만 끓는 불에 가시와 같을 뿐이겠는가.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때부터 부인이 여러 번 꿈에 보였으니, 또한 서로 느낌이 있었던 것일까. 슬프다. 정미년(1787) 12월 계묘일에 廣寧의 十三山 객사에서 쓰다.¹³⁾

言, 以不朽千古. 伏惟幸鑑諒而裁擇焉.”

- 12) 李宜顯, 『陶谷集』 卷24, <亡室贈貞敬夫人魚氏行狀>. “夫人既葬, 術人多言地之不宜, 塋隧之事, 猶未究竟. 故姑不得誌其藏, 先爲狀以示後人. 雖文字短拙, 不能盡其實美, 而尙蘄以此考徵其萬一云爾.” ; 李宜顯, 『陶谷集』 卷24, <亡室贈貞敬夫人宋氏行狀>. “始擬作小誌, 以識其藏. 而顧念先考妣幽宅, 尙在商量. 夫人既從葬, 亦當隨而定其遷否. 故姑以狀述先焉, 語雖未該, 大體亦已略舉矣, 覽者尙有以詳之也.”
- 13) 俞彥鎬, 『燕石』 冊8, <夫人遺事>. “予爲夫人, 誌其生壙及喪擬述遺事一通, 屬狀于夫人姪副學君, 而顧職事倥傯, 無暇及此. 今年冬, 奉命之燕, 馬上隨思輒錄, 摭爲二十

밑줄 친 부분에서 유의해 볼 것은 행장과 유사의 관계이다. 유언호가 유사를 지어 아내의 조카에게 행장을 부탁하려 했다는 것은 유사가 행장을 짓는데 1차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행장이 묘지명 제작을 위한 자료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행장과 유사의 관계도 그러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행장과 유사는 망자의 일생을 구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전장문에 속하는 글이란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같지만, 유사보다는 행장이 좀더 형식화되고 규격화된 문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묘지명보다는 행장이, 행장보다는 유사가 보다 덜 형식화된 글쓰기로서, 망자의 행적을 보다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¹⁴⁾

망실행장의 저술을 통해 ‘죽은 혼백을 위로한다’는 것은 아마도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내를 문자를 통해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선의 말처럼, 망자의 행적이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남은 자의 책임이다.¹⁵⁾ 물론 이러한 저술 목적은 망실행장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든 행장과 묘지명 일반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망실행장을 짓는다는 것은 행장 제작의 현실적인 목적을 가리킨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에게는 행장이 어머니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초상화한 장이 귀한 시절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란 점에서 그 두루마리한 장이 자식들에게 갖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다.

또한 서술자인 남편에게 있어서도 망실행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망실행장의 저술은 남편에게 아내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며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보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른바 ‘산 자의 애통함을 씻는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기억하는 글쓰기 과정에서 얻을

九條 噫，遼薊風霜，客思愁絕，而心裏想起，筆端寫出，都是四紀，中間契濶，死生之感，抽哀尋初，奚啻如湯火芒刺也。自入殊域，夫人屢見于夢，豈亦有相感者存耶。悲夫。丁未季冬癸卯，書于廣寧之十三山店舍。”

14)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48, <室人遺事>. “余既爲淑人爲誌，而誌辭簡。”

15) 李選, 『芝湖集』 卷9, <亡室孀人尹氏行狀>. “惟托銘立言之士，使其平日之行，不至於泯沒，是余在世者之責。”

수 있는 정서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상투적 표현과 망자의 추상화

망자를 위한 글쓰기가 관념적인 어휘로 망자를 추상화하고 유교적 부덕을 갖춘 규범적 인간형으로 전형화하는 경향은 장르를 막론하고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한 매너리즘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은 묘지명이나 제문의 경우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그것은 각각의 장르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¹⁶⁾ 묘지명이나 제문을 단순한 의례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예문으로 인식했을 때 그에 대한 비판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행장의 경우 문예문으로서의 인식은 약했으나 ‘사실’에 입각해 서술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만큼, 망자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은 행장을 지음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주지하듯, 이현일과 김만중은 선비행장을 지을 때 그 내용이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김석주는 아내의 행장뿐 아니라 묘지명도 직접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내의 묘지명을 쓴다 해도 결국 내가 쓴 행장에 의거해서 짓는 것이니 내 글이 사실이면 그 뿐’이라며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장을 짓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¹⁷⁾ 오원 역시 아내의 행록 25조목을 짓고서 자기 글이 아내를 전부 다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망자를 거짓으로 칭찬하여 쓴 다른 글과 자기 글이 비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¹⁸⁾ 이처럼 작자들이 선비행장이나 망실행장에서 사실성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당시의 행장 글쓰기가 보여주는 허위의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16) 안득용, 2007,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비지문의 전범과 서술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9, 235-236면 ; 박무영, 2003,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333-336면.

17) 金錫胄, 『息庵先生遺稿』 卷23, <亡室孺人李氏墓誌銘>. “余既爲亡室孺人狀, 將丐人以銘其藏. 既而復念曰: ‘人之爲之銘, 亦將据吾狀焉. 苟吾書之以實斯可矣, 何丐爲.’ 且吾之書之也, 非敢有私乎亡者也.”

18) 吳琰, 『月谷集』 卷12, <亡室孺人安東權氏行錄>. “余之知, 固無以盡君, 斯錄也又不能悉余知, 而惟其純行懿質, 與夫志識之高曠者, 亦足於斯得之, 而非空言稱述者比也.”

작자들이 행장의 사실성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독자뿐 아니라 당대인들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망자의 언행을 재현하는 상투적인 표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망실행장에서도 부덕을 갖춘 이상적인 여성으로 망자를 추상화하고 전범화하는 경향은 흔하게 발견된다. 규범화된 언술로 그려지는 망자의 모습은 심지어 그것이 어머니인가 아내인가 딸인가에 따른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여성 일반으로 추상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 일조하는 상투적 표현의 예를 망실행장에서 찾아보자.

*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노성하여 법도가 있었다. 슬픔과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 비록 어린 비복들이라도 감히 속일 수 없었으니, 관찰사가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¹⁹⁾

* 나면서부터 숙성하고 총명하였으며 여공 또한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하홍공이 특별히 사랑하여 곁에 두고 직접 반씨의 『여계』를 적어서 가르쳤다. 숙인이 자랄때 하홍공이 항상 말씀하셨다. “우리 집안에 자녀가 많지만 이 딸이 도리를 아니 함께 이야기할 만하다.”²⁰⁾

우선 시집가기 전 처녀시절에 대한 서술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어른스러웠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기며 특별히 사랑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흔히 서술의 대상인 여성은 부모의 입을 빌어 ‘여러 자녀 가운데 특히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믿음직한 딸로 묘사되곤 한다.

한편 대상 여성의 혼인 이후의 모습을 재현하는 상투적인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며느리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시부모의 평가이다. 게다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시댁 어른은 흔히 그 눈에 들기가 몹시 어려운, 까다롭고 엄한 성격의 소유자로 설정된다.

*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행동거지에 절도가 있었고 받들에 예의법도가 있었다. 우리 부모가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진정 내

19) 姜希孟, 『私淑齋集』 卷7, <夫人安氏行狀>. “夫人自幼, 器宇老成, 自有法度, 喜怒不形, 未嘗妄語, 雖童穉僕隸, 不敢欺以詐, 觀察使奇愛之.”

20) 金壽增, 『谷雲集』 卷6, <亡室淑人曹氏行狀>. “生而夙成, 聰明穎悟, 其於女工, 亦無不能. 夏興公鍾愛而教迪, 手書班氏女訓而授之. 及長, 夏興公常曰: “吾家子女多, 惟此女識道理, 可與語也.””

며느리로구나.”²¹⁾

*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는 시아버지를 친부모와 같이 섬겼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일찍이 세속 부녀자들의 곁만 화려한 말단의 예의 범절을 따른 적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번 이렇게 칭찬하셨다. “이 며느리는 참된 덕을 갖추었다.”²²⁾

* 돌아가신 아버님은 성격이 엄정하여 일가 부녀자들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이 적었는데 오직 아내에 대해서는 늘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과 태도를 모두 갖추었으니, 진실로 우리 어진 며느리이다. 반드시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올게야.”²³⁾

망실행장을 지을 때 남편은 생전의 아내가 한 명의 부녀자로서 당대의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온전히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그리고자 한다. 친정부모에게 믿음직한 딸로서, 시부모에게 어진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것은 그러한 이상적인 여성상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인정을 넘어, 내외 친척과 이웃을 포함하여 노소를 불문하고 생전의 아내를 아는 모든 이들이 아내의 사람됨을 인정했다는 식의 언술도 흔히 발견된다.²⁴⁾ 여기서 ‘女中君子’나 ‘女士’는 아내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는 데 관습적으로 동원되는 단어다. ‘비록 문자를 배우지는 않았으나 식견이 높고 사리에 통달했다’거나 ‘문자를 알았으며 티를 내지 않았다’,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는 구절은 아내의 높은 식견을 표현하는 공식구에 해당한다. ‘옛날 어진 부인들의 행실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내의 사람됨에 대한 총평으로서 다분히 상투적이다.

또한 아내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망자를 ‘이상적 부인’으로 그리기 위해 종종 동원하는 서술방식이다. 망자를 계녀서가 요구하는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형상화하다 보면, 망자 주변의 사람들은 약간씩 흠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

21) 李選, 『芝湖集』 卷9, <亡室孺人尹氏行狀>. “入吾門, 謁吾父母, 其動止折旋, 舉有儀則. 吾父母喜甚曰: “眞吾婦也.””

22) 趙觀彬, 『悔軒集』 卷19, <亡室貞夫人昌原俞氏行狀>. “歸余家, 以事其父母者, 事吾大人. 惟赤心誠敬, 未嘗效流俗婦女浮文末節. 吾大人每稱之曰: “此婦有實德.””

23) 吳瑗, 『月谷集』 卷12, <亡室孺人安東權氏行錄>. “先君性簡穆, 於一家婦女, 少所許可, 而獨嘖嘖稱君曰: “德容俱備, 眞吾賢婦, 必有以祿吾家者.””

24) 예를 들면, 趙觀彬, 『悔軒集』 卷19, <亡室貞夫人昌原俞氏行狀>. “大小上下, 皆得其心, 生也莫不賢之, 死也莫不悲之. 非平日秉德之深且厚, 則亦何能致此耶.”

기도 한다.

* 젊었을 때 석실에서 나와 귀녕을 갔을 때 여러 형제가 모여 각각 숭상하는 바를 논하였다. 사대부 집안에 마차와 말이 집 문을 가득 채우고 빈객이 마루에 가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가장 성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숙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와 생각이 다릅니다. 소나무로 된 울타리와 띠 집에서 수풀과 계곡을 끼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²⁵⁾

김수증은 아내가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기 위해 아내가 형제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아내의 그러한 가치관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앞서 진술된 처가 형제들의 세속적인 욕망과의 대비를 통해서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아내의 높은 식견과 인격은 ‘세속의 부녀자들과 다르다’는 식의 한 마디로 요약된다. 또한 망실행장의 서술자는 남편 자신을 아내와 대비되는 인물로 설정하기도 한다. 아내의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자신의 모난 성격과 대비시킨 정시한의 경우나,²⁶⁾ 배꽃기를 좋아하고 통이 컸던 아내의 성격을 인식하고 좁스러운 자신의 성격과 대비시킨 유언호가 그런 예이다.²⁷⁾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과 묘지 등은 전통사회 여성들의 보편적 일상의 규범화된 재현이란 점에서 그 본질은 동일하다.²⁸⁾ 여기서 망자는 자연인으로서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면모가 거세되고 계녀서가 요구하는 부덕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상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적 부인’을 나타내는 상투적 표현들이 그러한 경향에 일조하는바, 이로써 그런 자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보이게 하고 기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대

25) 金壽增, 『谷雲集』 卷6, <亡室淑人曹氏行狀>. “少時自石室歸寧, 與諸兄弟各論所向, 有言士大夫家車馬盈門, 賓客滿堂, 此最爲盛事者. 淑人曰: “我則異於是. 松籬茅舍, 映帶林壑, 此是好境界也.”

26) 丁時翰, 『愚潭集』 卷9, <亡室柳氏行錄>. “余自少患吐血證, 委頓七年, 心火大發不類恆人. 性又狠復, 喜怒乖常, 舉措顛妄. 室人有識慮, 能誘諭周旋, 俾不至陷於過惡者數矣.”

27) 俞彥鎬, 『燕石』 冊8, <夫人遺事>. “予性騫, 夫人則好施, 予性躁, 夫人則寬緩, 予性密, 夫人則濶略.”

28) 이경하, 2007, 「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 93-94면.

상 행장과 묘지 등이 그러한 상투성과 전형성을 비껴가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망실행장도 마찬가지다.

4. 구체적 서술을 통한 개성적 형상화

1) 장면화를 통한 구체적 진술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망실행장에서도 아내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추상화하는 상투적인 표현들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망실행장 내에서도 자료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투적인 표현으로 망자를 추상화하는 경향은 묘지명보다 망실행장에서 더 약해 보인다. 즉 행장의 서술방식은 일화 제시나 직접인용을 동원한 장면화 서술을 통해 망자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묘지명은 행장의 구체적 서술을 추상적인 언술로써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일 인물에 대한 행장과 묘지명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남편이 아내의 행장을 쓰고 타인에게 묘지명을 의뢰한 경우를 보면, 송시열의 <증정부인윤씨묘지>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쓴 묘지명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려준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²⁹⁾ 이선이 쓴 망실행장의 요약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후반부에서는 망자에 대한 총평에 이어 망자의 가계 및 후손에 대해 서술하고 끝으로 망자의 남편과 자신의 친분을 밝혔다.

망자에 대한 총평은 程頤가 요절한 조카딸에 대해 “이 아이로 하여금 수를 누리게 했다면 세상에 이름이 나고 풍속을 닦아 서책에 빛을 드리웠을 텐데 불행히도 단명하였으니 얼마나 애통한가.”라고 했던 대목을 인용하면서 “나 또한 부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로써 대신했다.³⁰⁾ 평소 가까이 지내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경우, 여성에 대한 서술이나 평가는 조심스러울 수

29) 宋時烈, 『宋子大全』 卷187, <贈貞夫人尹氏墓誌>. “李參判選擇之狀其前夫人尹氏之行曰”로 시작되는 전반부와 “余曰”로 시작되는 후반부가 그것이다.

30) 宋時烈, 『宋子大全』 卷187, <贈貞夫人尹氏墓誌>. “昔程叔子哀其兄女賢而早夭曰: “使之享年, 足以名世礪俗, 垂光簡冊, 不幸短命, 何痛如之?” 余於夫人亦云爾.”

밖에 없다. 송시열이 윤씨 부인의 묘지를 쓰면서 절반 이상을 행장의 요약으로 대신한 것도 그런 사정에서 연유할 것이다.

이처럼 묘지명이 망실행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다 보면 망자의 행실에 대한 묘지명의 서술은 일반화되고 추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임영이 쓴 망실행장과 박세채가 쓴 묘지명에서 동일한 내용을 서술한 대목이다.

* ①입종할 때에도 그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청해 좌우에 손을 잡고 종일토록 잠시도 놓으려하지 않았다.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여뻐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만약 저를 잊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 어머님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죽지 않겠습니까마는 저의 죽음이 가장 슬픕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 어찌 합니까? 우리 어머니의 운명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하였다. 또 남편을 불러 앞에 오게 하고 말했다. “제가 죽어도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서로 짝이 된 지 10년 만에 생각지도 않게 부부의 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당신과 더불어 시골에서 함께 살고자 하였는데 어찌 이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두 슬퍼서 차마 보지 못했다. ②수시로 시각이 어떠한지를 물으며 말하기를, “나의 기력이 반드시 오늘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죽을 때는 도리어 곁에 있는 사람을 물러나 쉬게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은혜와 의리를 각각 다한 것이 이와 같았다. 엄습하는 모든 일을 매우 상세하게 다 나누어 부탁하였고, 엄습히 죽는 순간에도 가까스로 말을 하는데 조금도 어그러진 바가 없었으니, 이에 의거해 장례를 행하였다. 아아! 죽음에 이르러서도 뜻이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은 비록 대장부라 해도 어려운 일이다.³¹⁾

* ①그 시어머니 조씨와 유인 신씨의 손을 잡고서 영결하며 각기 은혜와 의리를 말하였다. 또 임영을 불러서 말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영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옛날의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제 어머니로 인하

31) 林泳, 『滄溪集』卷17, <亡室安人曹氏行狀>. “臨且死, 請其若母左右執手, 終日不暫舍, 泣而謂其姑曰: “未報憐愛之恩, 而今且死矣, 姑若憐我不忘, 但願軫恤吾母而已.” 又顧其母曰: “人孰無死, 我死最悲, 奈吾母益無依何, 何吾母命道一至此耶?” 又呼其夫使前曰: “我死, 君其勿忘吾母.” 又曰: “不意相遇十年, 乃竟義終, 本欲與君共居鄉曲, 詎可得耶?” 仍涕下不止. 衆皆慘然不忍視, 數問時刻如何曰: “吾氣力必不過今日.” 垂絕時, 猶勉傍人退休, 俄頃而逝. 其精神之不爽, 恩義之各盡, 有如此者. 分付夔夔諸事甚詳悉, 當奄奄就盡之際, 厘厘自力出聲, 而所言無少錯遺, 皆可按行. 嗟乎! 臨死而志不亂, 雖丈夫或難之矣.”

여 당신께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듣는 사람마다 모두 슬퍼하였다. ② ‘또 염습하는 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³²⁾

임영의 망실행장에서 ①은 임영의 아내 조씨가 자기가 죽은 후 홀로 남게 될 어머니의 신세를 슬퍼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머니를 당부하는 대목이고, ②는 임종을 앞둔 아내가 염습과 같은 장례 절차에 대해 유언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을 기술한 대목이다. 박세채 역시 임영의 망실행장을 요약하는 데 묘지명의 대부분을 할애했는데, 망실행장의 ①②를 ①②로 요약했다. 죽음을 앞둔 조씨 부인이 늙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과 그 안위를 염려하는 간절함이 행장에서는 세 차례의 직접인용을 통해 잘 드러난다. 반면 묘지명에서는 가슴 아픈 유언의 순간이 ‘어머니로 인해 누를 끼치게 되었다’는 짙막한 한 마디로 요약되고, 망자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쓰면서 고요히 임종의 순간을 맞았던 장면은 삭제되어 있다.³³⁾

남편이 아내의 행장뿐 아니라 묘지명도 함께 남긴 경우에도 행장의 구체적 장면화 서술이 묘지명에서는 일반적 진술로 요약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김석주가 쓴 아내의 행장과 묘지명에서 같은 내용을 서술한 대목이다.

* ①우리 집안에는 친가와 외가 자매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매번 잔칫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 외중에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에 말이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하루 종일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어찌 혼자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라고 내가 슬쩍 말했다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자신도 잘 단속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살피겠습니까?” ②혹 비녀, 귀걸이, 구슬로 장식된 것들을 같이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투어 구경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슬쩍 물러나와 한 번도 손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찌서 혼자 구경하지 않는 것이요?”라고 내가 물으면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제 물건이 아니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구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고, 아내의 식견이 탁월한 데 놀랐었다.³⁴⁾

32) 朴世采, 『南溪集』外卷14, <安人曹氏墓誌銘>. “其姑趙氏與申孺人執手辭訣, 各稱恩義. 又呼謂泳曰: “不意永訣. 雖欲踐舊約得乎? 敢以吾母累君.” 聞者慘然. 且言襲斂事甚詳.”

33) 망실행장에는 아내의 임종을 길게 서술하는 경우가 흔한데, 묘지명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망자의 임종을 서술하는 데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 ①'무릇 세상에서 재주와 지혜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부인들은 총명함을 드러내는데, 유인은 홀로 그렇지 않았다. 표현을 잘 가려서 말했으며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아니면 종일토록 잠잠하였다. ②'무릇 세상에서 보석과 옷, 애완물을 좋아하는 것은 부인들의 일반적인 성질인데, 유인은 홀로 그렇지 않았다.³⁵⁾

인용한 대목은 김석주의 아내가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거론한 바 있듯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이나 묘지명에서는 망자의 높은 인격과 식견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과 대조하는 서술방식을 종종 활용한다고 했다. 이 때 '세속의 부녀자와 다르다'고 하는 상투적인 공식구가 흔히 동원된다고 했는데, 묘지명의 ①'②'에서도 '세속의 부녀들은 이러저러한데 유인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일반적 진술이 반복되고 있다. 요지는 동일하지만, 행장의 ①②는 친가와 외가의 부녀자들이 많이 모이는 잔칫날이라는 배경 설정과 남편과 아내의 대화 형식을 빌어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①'②'는 계녀서에 나옴직한 지극히 일반화된 진술로서, 이를 통해 그려지는 망자의 모습은 대단히 추상적이다. 이에 비해 직접인용과 장면화 방식을 동원한 ①②의 구체적 진술은 망자를 보다 개별화된 실체로서 느끼게 한다.

묘지명에 비해 행장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은 묘지명을 행장보다 먼저 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유언호의 망실유사와 묘지명이 그런 예이다.

* 을해년(1755) 겨울 부인이 뱃길로 친정에 갈 때 내가 함께 동행을 했었다. 집안에 마침 도연명의 김매는 그림이 있는 작은 병풍이 있어서 가지고 갔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문득 우암 선생이 곡운 김공의 처 조부인의 묘문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곡운 선생이 청풍으로 벼슬을 살러 가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이 배에서

34) 金錫胄, 『息庵先生遺稿』卷22, <亡室孺人李氏行狀>. “吾家內外姊妹甚盛. 每於燕日, 相聚會與語, 或不能不及人長短. 君則嘿然終日. 吾偶謂之曰: “君胡獨不言?” 君曰: “吾身之未檢, 安能檢人?” 或見諸釵珥珠玉之飾, 坐者咸爭傳以爲玩, 君則退然, 未嘗一近其手. 吾復謂曰: “君胡獨不玩?” 君曰: “非吾物也. 無欲之心, 故不玩.” 吾自聞其語, 不覺有愧色, 歎其識之卓也.”

35) 金錫胄, 『息庵先生遺稿』卷23, <亡室孺人李氏墓誌銘>. “凡世之名才慧之婦者, 類靡靡然爲聰明, 孺人獨不然. 能擇辭而說, 非所當言, 終日嘿如也. 凡世之嗜珠玉服玩之好者, 婦人之性類然也, 孺人則獨否.”

<귀거래사>를 읊으며 빨리 돌아오기를 권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빈한 집에서 나고 자란 부인이 혹시 부귀함을 부러워한다면 장부로서 또한 어찌 벼슬과 녹을 가볍게 여기고 은거하는 삶을 즐겨워할 수 있겠는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었다. 내 말에는 실로 그러한 숨은 뜻이 있었는데, 부인이 내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곡운 선생과 같은 맑고 높은 뜻을 지녔다면, 저 또한 절로 조부인이 될 것입니다.”³⁶⁾

이것은 1755년에 유언호가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게 되었을 때 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한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유언호는 아내가 남편의 출세만을 바라는 세속적인 부녀자가 아니었다는 것, 남편의 숨은 뜻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유사에서는 유언호가 곡운 선생과 그 부인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면서 속으로 했던 생각과 아내의 재치 있는 대답을 기술함으로써, 부부가 주고받은 선상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儒者의 진퇴 문제와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아내의 말을 직접인용함으로써, 망자를 보다 개성적인 존재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묘지명에서는 이 대목을 다만 “내가 병풍 그림을 가리키며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혼연히 그 뜻을 깨달았다.”³⁷⁾는 한 마디로 요약하는 데 그침으로써 망자에 대한 생생한 느낌은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2) 망자의 개성적 형상화

(1) 자연인으로서 아내의 성격

망실행장이 직접인용과 일화의 제시를 통해 망자의 생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여기에 형상화된 망자의 모습에서는 보다 개성적인

36) 俞彦鎬, 『燕石』 冊8, <夫人遺事>. “乙亥冬, 夫人以水道歸寧, 予與之偕行, 家中適有淵明耘耔圖小屏, 持入行中, 予見是圖, 而却思尤庵所撰谷雲金公配曹夫人墓文, 盛言其夫人當谷雲之赴清風官也, 舟中爲諷歸去來辭, 勸其早歸, 予對夫人而語是事, 竊以夫人生長於清貧之家, 苟或羨艷富貴, 則爲丈夫者, 亦安能輕爵祿而樂棲遁乎. 予言實有微意也, 夫人聞而笑曰: “若有谷雲之清高, 則亦自有曹夫人.””

37) 俞彦鎬, 『燕石』 冊6, <夫人墓誌銘>. “夫人家在上游, 以時歸寧, 乙亥秋, 予同舟以行, 携一小屏, 卽畫陶靖節夫耕妻耘者, 昔谷雲金公, 當赴官也, 其淑人曹氏於舟中, 爲諷歸去來辭, 風其早歸, 予指屏畫以語是事, 夫人欣然領意.”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제시된 일화나 직접인용 자체가 망자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전범화하여 상투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행장에서는 그 일화나 직접인용이 의도하는 주제와는 별도로³⁸⁾ 망자를 개성적인 한 인간으로 형상화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아내는 아버님을 섬김에 한 터럭도 비밀이 없었다. 하루는 친정에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늦었느냐고 아버님께서 물으시자 당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늦게 일어나서 낫을 씻고 머리를 빗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하게 말하고 숨김이 없으니, 요즘 세상에 부녀자들이 꾸며대는 말에 딸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칭찬하기를 마지 않으셨다. 아마도 시집온 지 달포 남짓 밖에 안 되었을 때였다.³⁹⁾

* 인척 집안의 옛 노비였다가 저자로 시집간 사람에게 빚을 내어 쓴 적이 있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이자가 붙어서 그 액수가 많았는데 미처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부가 죽었다. 부인은 그것이 한이 되어 꿈까지 꾸게 되었고, 급기야 송영으로 가서 그 남편의 동생을 불러 액수를 돌려주었다. 그 동생은 전혀 모르던 일이라 마치 선물이라도 받는 듯했고, 부인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윤씨에게 시집간 내 조카딸은 늘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막내 작은어머니 같은 신용은 요즘 세상에 보기 어려워요.”⁴⁰⁾

오원은 시집온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신부가 친정에서 늦은 이유를 시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솔직하게 밝혔던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아내의 정직한 성격과 시부모에 대한 진실된 태도를 효과적으로 그렸다. 하지만 남유용은 묘지명을 쓸 때, 오원의 아내가 시부모를 섬김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기술하되 이 일화는 채택하지 않았다. 망자의 개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

38)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볼 때는 망자의 부덕이란 동일한 주제에 주목하기보다 주제가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 행간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삶의 흔적들에 유의해야 한다. 서술자가 말하고자 했던 표면적 주제와는 별도로, 행간에는 망자에 관한 또 다른 정보가 숨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이경하, 앞의 논문, 90면)

39) 吳琰, 『月谷集』 卷12, <亡室孺人安東權氏行錄>. “君事先君, 一毫未嘗有隱, 一日歸寧還, 先君問來何晚, 君對曰“晏起未及盥櫛也.” 先君聞而曰“此其白直無隱, 非今世婦女修飾者比也.” 稱歎不已, 蓋嫁纔月餘矣.”

40) 俞彥鎬, 『燕石』 冊8, <夫人遺事>. “曾因連姻家舊婢之爲市人妻者, 舉債以用, 逐年增息, 厥數夥然, 未及償而其夫妻俱沒矣. 夫人恨結于中, 至發宵寐, 及赴松營, 招致其夫之弟, 準還厥數, 其弟則曾所不知, 如新受賜, 夫人於是乎喜曰: “今而後可安於心矣.” 吾從女尹氏婦, 每言: “吾季母之有信, 近世所未見”云.”

화는 오히려 묘지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인용문은 유언호의 아내가 남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고 신세진 것은 반드시 갚는 셈이 정확하고 깔끔한 성격이었음을 나타내는 일화이다. 빚진 사람이 죽자 그 동생을 찾아가 기어코 빚을 다 갚았다는 이 일화 외에도, 유언호는 아내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일화를 더 들었다. 1756년 시골에서 상경하는 길에 행랑채 사는 하인에게 말을 한 채 빌렸다가 마부의 실수로 말이 중도에서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유언호의 아내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내 그것을 마음에 걸려 하다가 결국 22년 후에 말 주인에게 그 값을 물어주었다고 했다. 또한 남에게 진 빚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에게 받은 약간의 도움도 반드시 되갚았다는 일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일화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유언호의 망실유시는 아내를 박제된 이상형이 아닌, 살아 있는 자연인으로 느끼게 하는 서술이 돋보이는 글이다. 아내가 화를 냈다가도 뒤끝이 없는 성격이었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남편이 지적하면 부끄러워하며 후회했다는 언급은⁴¹⁾ 유언호의 아내를 계녀서에서 걸어 나온 사람으로 느끼게 하지 않는다.

(2) 생활인으로서 아내의 고민

남편에 대한 내조는 유가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때문에 기혼 여성의 행장이나 묘지명, 제문 등에는 훌륭한 내조자로서 망자의 언행에 대한 서술이 빠지지 않는다. 망실행장에도 그러한 진술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서술의 주체가 내조를 받는 남편이란 점에서 좀더 세심한 독해가 요구된다. 아내의 내조를 형상화하는 일화가 규범서나 열녀전에 제시되어 있는 훌륭한 내조의 전형을 단순히 답습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때로 내조자의 충고로서 직접인용되는 아내의 말 속에는 생활인으로서의 고민과 단순치 않은 삶의 결이 묻어난다.

41) 俞彦鎬, 『燕石』 冊8, <夫人遺事>. “恬和遜挹, 而性少急遽, 御家衆, 見有不是, 則稍費聲氣, 不少饒假, 然事過則已, 當其時, 予或有規, 則輒有慨然愧悔之色.”

* 아내는 시집은 뒤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을 보고는 깊이 근심하여 매일 틈만 나면 이렇게 말했다. “실체가 마땅한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께서 이미 과거를 위한 공부는 하려고 하지 않으시니,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공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 평상시 집안에 계실 때면 침상에서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예법에 맞게 용모를 삼가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법도가 있음을 본 적이 없고, 독서와 강학을 애쓰며 열심히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으니,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장부의 한 몸은 처자가 의지하는 대상인데, 우러러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분발해서 구태를 버리고 자신을 새롭게 다잡아 집안사람들에게 다시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끔 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공이 비록 가난하여 제가 술지게미나 겨조차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도 충분히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은 금세 흐르고 나이와 기력은 쉽게 쇠하는데 과거 공부와 학문, 둘 다 이루는 것이 없어 장차 스스로에게는 낭패가 되고 남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⁴²⁾

신익황은 아내가 틈만 나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회고한다. 그 말의 요지는 남편이 과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남들은 뭔가 다른 높은 뜻이 있어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곁에서 지켜본 남편은 그저 게으르고 평범해서 앞날이 걱정스러우니 대오각성 하고 분발하라는 것이다. 가혹하다 싶을 만큼 따끔한 아내의 이 충고는 신익황 자신의 자아비판일 수도 있겠고, 하는 일은 공부뿐인데 별다른 성취는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켜봐야 했던 조선시대 아내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내조의 어려움은 그것이 생활고와 직결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온다. 인간은 망설임장에서 아내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가난과 싸우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말에 따르면, 집안의 식솔이 20명이 넘는데 1년 수입으로는 겨우 몇 달을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아내는 평생을 허둥지둥 환난을 당한 듯 살아야 했다. 하지만 아

42) 申益愧, 『克齋集』卷11, <亡室恭人順天朴氏行實記>. “君既于歸, 見余無以異於人者, 則深以爲憂, 每乘間言曰: “實不副名宜, 爲君子所恥, 公既不肯爲舉子業, 外人亦疑公若有爲者, 以吾觀之, 居室日用之間, 寢不早起, 容不雅飾, 發言制行, 未見有則, 讀書講學, 未見有勞, 凡與衆人殊者何在? 丈夫一身, 妻子之所依, 仰期望者, 而乃今若此. 何不奮然革舊自新, 使家人改觀而取信於外人? 能如是則公雖家貧, 使我不厭糟糠, 而亦足以爲樂. 不然, 吾懼其歲月易邁, 年力易衰, 科業學問, 兩無所成, 將如己之狼狽, 人之笑侮.””

내는 ‘남에게 동정을 구하는 행동은 정말 싫다’ 하고 친정 부모나 형제들을 만나러 갈 때는 여종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켜 자신의 어려움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했다.⁴³⁾

어렸을 때부터 서울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내가 시집은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늘 힘들어하면서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심했던 모습을 회고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행장 곳곳에 피력하고 있다. 이간은 아내가 죽고 염습을 하려는데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자 피치 못해 일가 사람들의 부조로 깨끗한 옷을 마련해 염을 한다. 그리고는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하고 사치함을 더럽게 여기던 아내가 혹시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못마땅해 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염습에 임하여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남편의 뜻을 받들었던 黔妻의 아내보다 자신이 못하지 않은가 부끄럽다고도 했다.⁴⁴⁾

이간의 망실행장이 견디기 힘든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며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아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면, 유언호의 망실유사는 생활고에 직면한 아내의 고민을 보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전한다.

* 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소 성품이 맑고 깨끗해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물도 씻어서 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엌일을 주관하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재물이 있고 없음에 마음이 움직임을 면하지 못했으니, 그것이 어찌 일신을 위해서였겠어요? 다만 어머니께 의지해 먹고 사는 집안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예전보다 더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장차 좋은 방도가 없으면 마찬가

43) 李東, 『巍巖遺稿』 卷16, <亡室安人尹氏行狀>. “安人上老下累, 餘二十口, 而一歲所入, 未調數朔, 百兩假貸, 以充朝夕, 嫁衣既盡, 繼以田獲. 居平, 遑遑如在患難. …… “有若乞憐之爲, 則吾甚厭之矣.” 故其前後歸覲及兄弟相聚之行, 必先戒女僕曰: “爾於若輩, 慎勿及家間零瑣也.” 及後追聞一二傳說, 則輒不樂曰: “聞人寤室, 周則不逮, 否則不安. 此吾不欲人詳知, 而爾何不謹吾戒也?”

44) 李東, 『巍巖遺稿』 卷16, <亡室安人尹氏行狀>. “黔氏之斂也, 單被不能掩足, 而其婦不聽其橫斂, 此夫婦間知己也. 今安人之亡, 生時所服, 無一領完潔者, 不免以一家所賙苟充以斂之. 自傍人觀之, 潔帛淨絮, 視單被不爲不厚矣. 未知安人已自蟬蛻於血肉軀殼之中, 不滯其平素若洗之志耶? 不然則汗垢敝襖, 麤綿單裳, 卽其無斂之服, 而同納於匱中, 其必挈此檻襪, 超然整理其舊時寒儉矣. 其夫平日未必以不相知者自處, 而當事急湊, 何乃遠出黔婦之下哉? 吁可愧矣.”

지예요. 자식들은 점점 자라는데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게 되면 어찌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할 만한 일은 다만 과거를 보아 벼슬하는 길 하나뿐이예요. 비록 세도가 험난한 줄은 알지만 먹고 사는 일이 달렸으니 현달함을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녀자의 심정은 정말 슬프답니다.” 이에 나는 서글픔을 금할 수 없었다.⁴⁵⁾

김수증이 벼슬길을 떠날 때 그 아내 조부인이 <귀거래사>를 읊었다는 이야기. 유언호가 아내에게 하자, 아내가 웃으며 “당신이 곡운 선생의 뜻을 지녔다면, 나는 조부인이 되겠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호는 안사람이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면 장부가 어찌 벼슬길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의 현달을 바라는 것은 단지 부귀영화를 바라서만은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조선의 아내들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재물의 있고 없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규훈서가 가르치는 내조의 바른 자세는 재물의 있고 없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의연해야 하지만, 그것은 먹고 입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의 이야기이다. 세도가 험난한 줄은 알지만 남편이 벼슬길에 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거기에 먹고 사는 일이 달렸고 자식들의 장래가 관계하기 때문이다. 유언호의 아내도 선비의 아내로서 맹광과 환소군처럼 살고 싶고, 조부인처럼 <귀거래사>를 읊으며 벼슬은 쓸 데 없다고 남편에게 은거하는 삶을 권하고 싶지만, 남편이 벼슬길에 나아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바람이 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내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내조의 어려움을 보다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망실행장의 특징이라 생각된다.

(3) 임신과 출산으로 병든 몸

망실행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타의 행장이나 묘지명과 구분되는 특징

45) 俞彦鎬, 『燕石』 冊8, <夫人遺事>. “夫人嘗言: “吾先妣素性清潔, 眞俗所謂水亦欲洗飲者, 而以其主饋責重, 不免有無之閃心, 此豈爲一身哉? 特以家衆之仰哺者多耳. 今我計活之艱, 殆有甚於昔日, 不惟目下之難支, 亦無方來之善策, 每念有子漸長, 使之困於飢寒, 挫其志槩, 則亦非細憂也. 所可爲者, 惟有科宦一塗, 雖知世道之險巖, 而拘於生事, 不能無懸望之心, 婦女之情, 良亦憾矣.” 仍自悼不已.”

중 하나는 대상 여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비교적 상세하고 사실적인 정보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그 아내들의 질병은 임신과 출산 혹은 유산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편이 망실행장을 지으면서 아내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이런 사건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 부인은 평소 몸이 약하고 기운이 약했지만 오히려 큰 병은 없었다. 처음에 아이를 낳다가 하혈을 너무 많이 했고, 그로 인하여 허비증이 생겼지만 한참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다. 그런데 병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 두 번 세 번 해산을 하면서 점점 심해졌다. 네 번째 해산에서는 처음으로 아들을 얻어 온 집안이 희색을 띠며 서로 축하하였고 부인 또한 스스로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병이 더욱 위독해지더니 결국은 살려내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⁴⁶⁾

* 부인은 나에게 시집은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신을 하였는데, 만삭 때 유산을 하고 이로 인해 심한 병을 얻었다. 증세가 심환과 비슷했는데, 대단히 흥미한 중에도 내가 잡아끌어서 경계하는 말을 하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용모를 단정히 하였다.⁴⁷⁾

* 병자년(1756) 5월 초하루에 장씨가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곡하다가 쓰러져서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여 기운을 차리게 했다. 이 해에 또 유산을 하였는데 남자 아이였다고 한다.⁴⁸⁾

인용문은 차례로 이의현의 두 번째 부인, 조관빈의 첫 번째 부인, 황윤석의 부인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잦은 출산 또는 유산으로 인해 지병을 얻어 평생을 고생해야 했다. 황윤석이 쓴 아내의 생줄기는 이런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행실기가 아닌 생줄기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다 아내의 임신, 출산, 유산, 질병의 기록으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 사건마다 일어난 해를 꼬박꼬박 명기하였고, 아내가 유산하거나 출생 후 일찍 죽은 자녀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생과 함께

46) 李宜顯, 『陶谷集』卷24, <亡室贈貞敬夫人宋氏行狀>. “夫人素儻弱少神氣 而猶無大段疾恙. 始玃兒, 下血過多, 仍成虛憊之證, 久乃得安. 而根株尚在, 再玃三玃而愈加. 至四玃, 始得男子, 舉家動色相賀, 夫人亦自幸. 而病益危劇, 遂至不救.”

47) 趙觀彬, 『悔軒集』卷19, <亡室貞夫人昌原俞氏行狀>. “夫人歸余十五年, 始有孕, 朔滿墮胎, 自是得奇疾. 證似心患, 雖在十分迷眩之中, 余有提警之言, 則輒爲之歛心神而整容儀焉.”

48) 黃胤錫, 『頤齋遺藁』卷22, <記亡室生卒>. “丙子五月初一日張氏卒, 君哭且絕, 強之食得全, 是年又損胎, 蓋男子云.”

작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성혼한 이듬해인 기사년(1749) 3월에 유산을 했는데 의원이 약을 잘못 써서 조혈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내가 혈액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는데, 황윤석은 자신이 그 때 제대로 치료할 생각을 못했었다고 적고 있다.⁴⁹⁾ 또한 무인년(1758) 3월 23일에 태어난 둘째 아들 수표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12월 초사흘에 죽고 말았다는 것, 경진년(1760) 3월 27일에 태어난 둘째 딸은 마침 그 때가 어머니의 환갑이었던 까닭에 이름을 甲恒이라고 지었다는 것, 임오년(1762) 2월 21일에 태어난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꿈에 斗柄이 내실 침소에 임하고 못 별들이 그것을 둘러쌌다 하여 이름을 斗龍이라 지었다는 것⁵⁰⁾ 등 유사한 예가 매우 많다.

황윤석의 아내 창원 정씨는 여덟 번의 출산과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그렇게 얻은 3남 5녀 가운데 네 명이 아내보다 앞서 요절하였다. 아내의 임신과 출산은 곧 자녀의 출생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황윤석 자신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아내의 임신과 출산, 유산, 자녀의 요절과 그로 인한 슬픔, 그런 사건들로 채워진 아내의 생줄기는 곧 황윤석 자신의 사생활의 기록이기도 하다. 아마도 일기를 충실히 썼던 황윤석이었기에 아내의 생줄기를 것처럼 상세히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묘지명에서 여성의 출산이란 시집 가문의 일원, 특히 대를 이을 자손을 생산한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 출산의 후유증으로 요절하는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곧 죽음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언급이 되지만, 대개는 출산의 결과로서 자녀의 수와 이름이 명기될 뿐이다. 더구나 유산의 경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묘지명의 서술태도와 비교할 때, 망실행장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록은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며, 황윤석의 망실생줄기는 그런 점에서 남다른

49) 黃胤錫, 『頤齋遺藁』 卷22, <記亡室生卒>. “三月損胎, 醫用藥誤甚, 不克調血, 先是十八歲丙寅, 在室患天行, 纔汗擧室出避, 乳婢不謹飲食, 始有積滯之崇, 至是又兼血病, 而余太疎迂, 不及致意療治.”

50) 黃胤錫, 『頤齋遺藁』 卷22, <記亡室生卒>. “丙子五月初一日張氏卒, 君哭且絕, 強之食得全, 是年又損胎, 蓋男子云. 戊寅三月二十三日-己酉-亥時第二男壽豹生, 貌狀甚奇, 先子愛之, 十二月初三日夭. …… 庚辰三月二十七日-壬申-第二女甲恒生, 是我慈氏周甲, 故名以甲. …… 壬午二月二十一日-乙酉-第三男斗龍生, 我慈氏夢斗柄南指, 正臨內寢而衆星繞之故名.”

의미가 있다.

5. 행장 글쓰기의 가치 재고

행장의 가치를 문예물로서의 완성도나 문학적 성취에서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 행장의 가치는 일상의 구체성, 규범화된 언술 이전의 진정성이 보다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망자의 일생을 기록하는 주체가 생시의 망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이란 점에서 그러하며, 무엇보다 자세함을 중시하는 행장 글쓰기의 특성상 서술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행장의 이러한 특성은 행장이 망자를 위한 글쓰기로서 전이나 묘지명에 비해 보다 의미 있는 지점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전하지 않는 행장 자료들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 딸이 유사나 행록을 지어 묘지의 자료로 제공하는 사례는 여성 묘지명이나 행장 등 곳곳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런 경우, 먼저 여성이 한글로 유사나 행록을 짓고, 이를 참고하여 가족 중 남성인 일원이 한문으로 정식 행장을 짓고, 다시 이를 토대로 이름난 문인이 묘지명을 짓는 순서로 망자를 위한 글쓰기가 진행된다. 남성이 유사나 행장을 지어 타인에게 묘지명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1차 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버려졌을 그런 글들이 실상은 망자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억들을 보다 풍부하게 담고 있었을 수 있다. 이들은 한 편의 글로서 완결성은 떨어질지언정, 파편화된 기억들 속에 담긴 진정성은 이름난 문인의 깔끔한 묘지명보다 못하지 않다.

본고에서 살핀 망실행장들에는 규훈서가 그리는 '이상적 부인' 외에도 생시의 아내를 기억하는 남편의 진정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아내의 자존심 강하고 깔끔하던 성격, 자신의 부족함을 따끔하게 충고하던 목소리, 가난을 무던히 견디면서도 어찌다 한번씩 내뱉던 아내의 푸념과 그 앞에서 초라하게 느꼈던 자신의 모습, 자식 여럿을 잃은 통한을 견디다 시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한꺼번에 무너지던 아내, 잦은 출산과 유산으로 병든 몸, 그리고 임종의 순간. 망

실행장은 그렇게 아내와 함께 했던 세월의 순간순간들을 세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망실행장 자료가 것처럼 생시의 아내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추상화된 언술로써 아내의 부덕을 칭송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한 자료들도 적지 않다. 분량이 길다고 해서 서술의 구체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일화 제시나 직접인용 사용이 곧 망자의 개성적 형상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4장에서 주로 인용한 자료들이 망실행장 28편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본고에서 살핀 망실행장의 장치는 행장 글쓰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그 해당 작가의 서술 태도나 글쓰기 방식에서 연유한 것일까? 망실행장과 묘지명의 비교에서 드러난 차이도 특수한 경우에 불과한가? 이상의 논의가 행장 글쓰기 전반의 특징으로 일반화될 수 있으려면, 연구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망실행장뿐 아니라 여성행장 전체로 논의를 확대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남성행장까지 자료를 확대해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망실행장을 대상으로 행장 글쓰기의 장치를 추론해 보았다. 행장 연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남은 과제가 많다.

(필자 : 서울대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주제어 : 아내, 行狀, 遺事, 墓誌銘.

투고일(2007.11.4), 심사시작일(2007.11.6), 심사종료일(2007.11.23)

<Abstract>

A Study on Women's *Haengjang*(行狀) Written by Their Husbands

Lee, Kyung-Ha *

The subject of this essay is women's *Haengjang* and *Yusa*(遺事) written by their husbands in *Joseon* Dynasty. *Haengjang*, records of a dead person's life, has been devaluated compared with *Myojimyong*(墓誌銘) or *Jemun*(祭文), because it has been regarded as less important than *Myojimyong* or *Jemun* as literary writing.

The object of this essay is to reconsider the value of women's *Haengjang* written by their husbands. Of course, women's *Haengjang* written by their husbands is attribute of normative writing that expresses her as an ideal women. However, it is also attribute of giving more various informations about wives' daily lives in traditional society compared with *Myojimyong*, and sometimes expressing husbands' real feeling on their wives.

Key Words : wife, *Haengjang*(行狀), *Yusa*(遺事), *Myojimyong*(墓誌銘)

* Lecture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